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구 PAC News)

www.pac.or.kr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Special News

언론중재위,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11

2010

C O N T E N T S

2010.November. Vol 125



- | | | |
|----|-----------|---|
| 03 | 이달의 주요뉴스 |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
| 04 | 인터뷰 | “고객의 신뢰 확보가 최우선 과제” (도재문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
| 06 | 위원단상 | ‘무심히 하는 말’을 ‘유심히 하는 말’로 (제주 중재부 김재원 위원) |
| 07 | 직원마당 | 서른 살 혼자 떠난 여행 (홍보팀 박경미) |
| 08 | 조정 후기 | 진실에 다가서기 (서울제중재부 박은영 조사관) |
| 09 | 백승찬의 영화세상 | 부당거래 |
| 10 | 이런얘기 저런얘기 | 커피 드라마 (I) |
| 11 | 기고 | 대통령을 감동시킨 어린이 기자 (김철균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
| 12 | 위원회 소식 | |
| 13 | 사건 처리현황 | |
| 14 | 위원등정 | |

ADR 기본법 제정방향 중점 논의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조정학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와 한국조정학회(회장 부구옥)는 지난 5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국내 ADR기관 관계자들과 ADR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 조정·중재제도와 가칭 ADR 기본법 제정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언론 조정·중재제도가 매체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ADR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조정결과에 어떠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행정형ADR과 언론 조정·중재제도’의 발제자로 나선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법학과)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공익적 성격이 강한 언론분쟁 영역에서 활동해온 ‘독립적’ 행정형 ADR이라고 규정하고, “언론 조정·중재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비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높은 피해 구제율을 보이는 ADR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절차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방안으로 “인터넷 콘텐츠에 의한 분쟁해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알선과 같은 ‘간이절차’를 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가칭 ADR기본법 제정방향과 선결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준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서울제5중재부장)는 현재의 ADR기본법 제정 논의에 대해 “소송 폭발로 법관들의 판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분야에서의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인 ADR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국내 ADR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하나로서 ADR기본법 제정이라는 화두가 등장했다”고 설명하고, ADR기본법 제정 시 분쟁해결 결과에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 외 분쟁해결절차는 법원에서의 절차가 아니므로 분쟁해결 결과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유병현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철 부산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구율화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으며, 각종 조정위원회, 법원 조정센터 등에서 ADR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해 ADR기본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정리 / 최명진(정책연구팀) 사진 / 김민정(홍보팀)

▲ 제 1 주제 발제를 하고 있는 정남철 숙명여대 법대 교수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고객의 신뢰 확보가

도재문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 제4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 대한상사중재원 원장(현)
- 아시아태평양중재그룹(APRAG) 공동의장(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외 분쟁해결)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는 ADR 기구간의 연대를 모색하는 한편 세미나 등을 통해 ADR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 대표적 ADR 기구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도재문 원장은 ADR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신뢰의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중재위원회로 발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수출업체들의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었죠. 1990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 하면서 무역외에도 건설, 해사, 정보통신, 금융 등 모든 상거래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합적인 ADR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어떤 분야의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수출업체에 대해 해외에서 클레임을 걸었을 때 이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외에 국내 상거래 분쟁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업체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간에 대금 결제 및 공사 지체 보상금 등을 둘러싼 분쟁이 가끔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분쟁들을 중재와 알선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재와 알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중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와 마찬가지로 중재인의 결정에 의해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들이 반드시 중재에 따르겠다는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알선은 저희 중재원의 15년차 이상 직원들이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알선은 무료로 진행되며, 약 50% 이상의 성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중재원은 작년 한 해 동안 318건의 중재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알선과 상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이 의뢰하는 상사분쟁에 대한 조정사건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

상사중재원이 갖고 있는 분쟁조정 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상사중재원은 4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상사전문 ADR 기구로서, 법조인은 물론 학계, 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을 중재인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건설, 지적재산권, 의료, 탄소배출권 관련 등 각 분야별로 450여명의 전문가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접수된 후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진 최선의 중재인을 저희들이 추천하면, 당사자들이 추천인 중 자신의 선호도를 매겨서 양 당사자가 가장 선호하는 순서로 중재인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사중재원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저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재제도는 재판을 대체하는 분쟁해결 제도이기 때문에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에게 중재를 맡기는 것도 고객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안한 ADR 기본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일본에서 ADR 종합법이 제정되었고, 한국도 ADR 기본법 제정에 많은 논의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ADR기구들이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ADR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는데, 그 기능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상사중재원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접수된 318건의 중재신청 중에서 국제중재가 1/4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보아 국제적인 상사분쟁을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는 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 분쟁에 대한 중재는 세계적인 중재기관이 있는 파리나 싱가포르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국제중재가 활성화된다면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서울에서 중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를 위해 국제 중재 규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재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 기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재그룹(APRAG)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재기관들의 모임이며, 2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합니다. 작년 3월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APRAG 총회를 통해서 국제 중재에 있어서 서울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의 위상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서비스를 한번 받아 본 분들은 ADR의 혜택이나 장점을 잘 알고, 다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도의 장점을 국민들에게 잘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DR의 진정성을 잘 알려서 기업인들은 각종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일반 국민들도 과도한 법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와도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여운규 차장 사진/김민정(이상 홍보팀)

‘무심히 하는 말’을 ‘유심히 하는 말’로



김재원 위원
(제주중재부, 제주대 통역대학원 교수)

개구리에게 가장 살기 좋은 온도는 섭씨 15도라고 한다. 이 개구리를 상자 안에 담아서 하루 1도씩 서서히 높여가면, 개구리는 조금씩 그 따뜻함에 마취되면서 활동성을 잃어가게 되고 온도가 60도에 이르면 소리도 없이 죽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살기 좋은 온도는 몇 도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몇 도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이런 질문들 자체에 무심하다. 너무도 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현실을 탓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이란 타성적(惰性的) 현실에 지나지 않는다. 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무심히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또 다른 현실은 죽음을 택할지언정 무심하게는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의 현실이다. 타성적 현실과 투쟁하면서, 소리 없이 잃어버렸던 자의식을 다시 만 들어가는 자성적(自性的) 현실인 것이다.

타성적 현실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무심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배운 대로만, 남이 하는 대로만 말을 하는 것이다. 정작 무서운 것은 이러한 사실이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무심하게 말을 함으로써 무심하게 생각하게 되고, 무심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 한 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너무도 무심하게 말을 하면서 천 냥 빚을 갚기는커녕 종종 듣는 이의 마음에 비수까지 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을 잘 하기란 무척 어렵다.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달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말이란 입으로 가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되고, 말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을 한다는 것과 ‘말조심’을 한다는 것을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육체는 생성되었을 때부터 ‘음식’이라는 입력을 요구한다. 그 입력이 몸 안으로 들어 오게 됨으로써 육체의 모든 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도 입력을 요구한다. 여기서의 입력은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것이다. 이러한 입력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를 담당하는 두뇌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입력은 반드시 출력되어야만 한다. 그 출력이란 육체적, 정신적인 배설을 의미한다. 소변이나 대변, 땀, 눈물 등이 육체적인 배설물이라면 말이나 일기 등은 정신적인 배설물이 되는 것이다. 그 배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육체적으로는 변비나 설사 등을, 정신적으로는 환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조심’이란 말을 조심히 해야 한다. “너, 말 조심해라!”라는 무심한 표현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니?” 등과 같은 유심한 표현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말을 조심히 하면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건강하게 배양할 수 있는 것이다. ‘유심히 말을 잘 하는’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말을 많이 하여봄으로써만이, 그리고 좀 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서 더욱 가슴 뭉클한(?) 말을 찾아보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서만이 배양될 수 있는 후천적인 능력인 것이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줍는 것이 환경보전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을 교육시키는 것이 그 본질적 핵심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아마도 ‘말’일 것이다. ‘말조심’이란 장애물을 잘 넘어서서 표현하고 싶은 바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쓰레기를 버리기는커녕 줍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에 인간과 가장 가까운 철학, 심리학, 언어학 등의 강좌가 힘을 쓰지 못함이 안타깝다. 그런 학문들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자기가 살고 싶은 적정 온도를 찾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른 살, 혼자 떠난 여행

만약 얼마 전까지 누군가가 내게 “최근에 가장 가슴 떨렸던 일이 뭐냐”고 물었다면 나는 아마도 조금 생각한 뒤 “지난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계단을 뛰어내려왔을 때요. 그 땀 정말 가슴이 뛰었죠.”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비록 물리적인 힘에 의한 가슴 떨림일지라도 말이다. 이쯤에서 눈치 채셨겠지만, 그렇다. 나는 언론중재위원회 최고의 ‘건어물녀’*인 것이다. 자량은 아니지만 건어물녀 세계대회가 있다면 나는 거의 금메달감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혼자서 일본 간사이(関西) 지방으로 여행 갔었던 일이지요” 라고.

혼자서는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밥도 잘 못 먹는 내가 혼자서 여행을(그것도 해외로)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올해 서른 살이 된 이번만큼은 여행 가이드북을 펴 놓고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여기, 여기, 그리고 저기야. 서둘러. 시간이 없다구!” 하는 여행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걷고 싶으면 걷고, 쉬고 싶으면 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말하자면 나는 산책과 관광의 사이에 있는 여행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다. 그러기에 일본 간사이 지방은 너무나도 좋은 여행지였다.

일본의 간사이 지방이라고 하면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등이 있는 지역을 일컫는데, 그 중 오사카는 무엇보다도 식도락을 즐기기에 최고의 도시였다. 오사카에는 먹다가 망한다는 의미의 ‘구이다오레’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오사카 사람들이 먹는 것을 좋아하고,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오코노미야키, 타코야키, 카레, 라멘, 구시카스, 부타만 등등... 열거하기도 벅찬 맛있는 음식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서 하루 세 끼가 부족할 정도였다.

활기찬 오사카와는 달리 교토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일본의 고도로서,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고즈넉하다. 신사, 가게, 길거리, 심지어 버스마저도 뭔가 기품이 느껴진다.

교토의 버스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한 시간에 멈춰 섰다가 사람들을 태우고는 다시 천천히 떠나간다. 나는 원래가 느려터진 인간이라서 무엇인가가 내게서 떠나간 후에야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교토의 버스처럼 말이다.

교토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각사(金閣寺)와 은각사(銀閣寺)를 떠올린다. 금각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외벽에 금박을 입힌 3층탑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내가 금각사를 찾은 것은 미시마 유키오의 1956년 소설 ‘금각사’를 읽고서이다. 소설의 주인공 미조구치는 아버지에게 금각에 대해 전해들은 뒤 상상 속으로 금각을 그리며, 절세미인을 봐도 “금각처럼 아름답다”고 형용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훗날 실제로 금각을 보았을 때 자신이 상상했던 것에 비해 초라한 금각을 보면서 실망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나에게 금각은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본 금각은 절대미의 상징까지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빛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진짜 금을 입힌 금각사와는 달리 은각사는 은색이 아닌 평범한 목조건물이었다. 은각사 자체보다도 내 마음을 끈 것은 은각사로 이어지는 길, 일명 ‘철학의 길’이었다.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가 즐겨 걷던 길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강변을 따라 난 한적한 길을 적당히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안단테의 빠르기로 걸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나는 노래까지 흥얼거린다. 내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전혀 철학적이진 않게도 소녀시대의 ‘Gee’였다. “너무너무 멋져. 눈이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떨리는 걸 지지 지지 베이베 베이베...” 그러면서 생각한다. ‘혼자 하는 여행도 좋구나’ 하고.

교토에서 숙소가 있는 오사카로 돌아오는 전철 안. 어느덧 날이 저물고 전철의 창문은 까만 거울이 되어 내 얼굴을 비춘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미소 짓고 있다. 30년 된 마른 생선이 오랜만에 물기를 머금은 순간이었다.



박 경 미 (홍보팀)

건어물녀* 연애에는 관심이 없고 '연애 세포'가 말라 건어물처럼 된 여성을 일컫는 신조어. 밖에선 세련되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운동복 차림으로 맥주와 간식을 찾고 만화책을 보며 애완동물과 대화를 나누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 (출처: 네이버 지식인)

진실에 다가서기

박 은 영 (서울제1중재부 조사관)

○○일보의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신청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신청인 A씨는 얼마 전 학생들을 가혹하게 체벌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학교에서 해직되었다.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체벌을 했는데 이것이 도가 지나쳤던 것 같이라며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그가 직접 나에게 말해준 내용이다.

그러나 ○○일보의 보도는 그의 말과 상당 부분 달랐다. 신청인 A씨가 술을 먹고 이유 없이 학생들을 때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를 해직시킨 학교에서는 그를 봉사활동을 위한 임시직으로 다시 고용했다는 내용이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에 ‘술을 먹고 이유 없이 학생들을 때린 적은 없으며,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학교에 다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수당을 받지 않고 한 일’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그가 가르치던 학생들의 진술서로, 보도에 나온 것과 같은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심리 중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였으므로 필자는 A씨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정정보도 문안 등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 지. 만.

해당 학교와 통화를 했을 때, 필자가 ‘진실’일 것이라고 믿고 있던, 혹은 ‘진실’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던 그 내용들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닌 것이 되었다. 학교 담당자는 아직 첫 수당이 나가지 않았을 뿐 A씨가 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임시직으로 고용된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A씨가 말한 것처럼 ‘돈을 받지 않고’ 일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받을 계획’ 중에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신청인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예상했던 대로 심리 중 밝혀진 사실들에 의해 그가 가혹한 체벌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양당사자가 반론으로 합의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신청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귀 기울여 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던 조사관으로서 그가 객관적 정보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공해 필자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를 탓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앞으로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굳이 중재부를 속여야겠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객관적 정보들을 가공하여 중재부에 제출할 테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제공된 정보들 사이에서 얼마나 ‘진실’에 다가서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백승찬의 영화세상

부당거래



▲〈부당거래〉의 한 장면(왼쪽)과 류승완 감독



2000년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데뷔한 이래, 류승완 감독은 줄곧 '액션 키드'였다. 액션 영화에 태생적으로 관심이 많고 잘 만든다는 함의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별명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가 이미 6편의 장편을 찍었고 30대 후반에 접어든 한국영화계 중진 감독이라는 점이었다. 언제까지 '키드'라 불릴 것인가.

류 감독의 7번째 장편 <부당거래>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개봉 전부터 평단과 언론의 호평이 이어졌고, 개봉 후에는 관객이 움직였다. 개봉 3주 만에 200만 관객을 불러 모았고, 300만 관객 돌파도 바라보고 있다. 10~11월 비수기 개봉, 청소년 관람불가라는 흥행에 불리한 조건을 딛고 거둔 성적이다. 이제 <부당거래>는 류승완의 '액션 키드' 시절에 이별을 선언하는 영화가 됐다.

<부당거래>는 유아 연쇄 납치살인 사건의 범인 검거를 둘러싸고 경찰, 검찰, 스폰서 등이 '더러운' 거래를 한다는 내용의 영화다. 경찰은 범인을 조작하고, 검사는 경찰이 구속한 스폰서를 돕기 위해 경찰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 스폰서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들이 권력 중심부에 박아둔 검은 돈은 순수한 호의의 선물이 아니다. 뇌물은 곧 보험이다. 궁지에 몰렸을 때 보험금을 타는 건 보험가입자들의 당연한 권리다.

언론 역시 단단히 한 몫 한다. 경찰의 수사에 흠집을 낼 방법을 찾던 검사는 언론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식 기사를 터뜨린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스폰서에게 받은 명품 시계는 기자의 손으로 흘러간다. 검사는 "요즘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 시계를 차고 다닐 일이 없다"는 녀석도 잊지 않는다.

이 영화에 선인은 없다. 황정민이 연기한 광역수사대 경찰 최철기가 주인공 격이지만, 그 역시 검거 실력은 출중할지언정 도덕성엔 흠집이 있는 인물이다.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번 승진에서 탈락한 그는 성공에 대한 욕망을 등에 업고 '부당거래'에 응한다. 부하나 친인척의 뇌물 수수 사실을 알아도 적당히 모른 척 넘어간다. 결국 최철기가 들어서는 파멸의 문은 스스로 만들어 둔 셈이다.

배우들의 호연도 언급해야 한다. 경찰 황정민, 부패한 검사 류승범, 능글맞은 스폰서 유해진은 물론,

일일이 거명하기 어려운 조연배우들도 '연기 올림픽'이라는 세간의 평에 걸맞은 연기를 보여준다. 류승완 감독의 영화에서 배우들은 언제나 날 것 그대로의 연기를 선보였지만, <부당거래>에선 작품의 완성도에 힘입어 더 효과를 낸다.

<부당거래>에도 류 감독의 장기와 같은 액션 장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액션 장면 자체의 쾌감을 위해 달렸던 '짜빠', <아라한 장풍대작전>과는 달리 <부당거래>의 액션은 탄탄한 이야기 구성에 실려 있다. '액션을 위한 액션'이 없다는 뜻이다. 현란함을 포기한 대신 현실감을 늘렸다. 류 감독은 언제나 본인이 스스로 각본을 썼다. 전문 작가의 시나리오를 사용한건 <부당거래>가 처음이다. 자신의 장기인 장면 구성, 연기 지도 등에 몰두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부당거래>는 상업영화의 틀과 대중의 바람에 어긋난 결말을 선보인다. 주말 오후에 연인과 함께 팝콘을 먹으며 즐기기에 부적당한 영화일지도 모른다. 건설 비리, 권력층의 부정부패 등 여전한 문제는 물론, 검사와 스폰서의 밀착 등 최근 불거진 문제까지도 담으면서 한국사회의 현실을 거울처럼 비춘다. 류 감독은 영화 기획이 일찌감치 시작됐다고 설명했고, "어설프게 답을 내고 싶진 않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배우들의 열연에 웃고 분노하며 2시간을 보낸 관객은 알고 있다. 영화가 비판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 불편한 영화에 많은 관객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 짝퉁 결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해 출판시장에는 인문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부당거래>에 씹쓸해하는 사회가 '공정'을 화두로 내건 2010년 가을 한국의 모습이다.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커피 드라마 (1)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리워진다. 최근 몇 년간 부쩍 늘어난 에스프레소 계열의 커피 전문점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직접 갈아낸 원두를 드립해서 마시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물론 설탕과 크림을 듬뿍 넣은 전통의 '다방 커피'도 여전히 인기가 있다.



커피의 기원이 에티오피아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우리가 음용하는 형태의 커피는 14세기 예멘의 모카(Mocha)항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문화권을 원조로 친다. 카페인 각성효과에 의해 성직자들의 기도를 돕는 신성한 음료로 추앙받던 커피는 투르크 제국의 번성과 함께 아라비아 반도에 널리 퍼지게 된다.

아라비아의 음료였던 커피가 유럽을 거쳐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에는 몇 가지 드라마틱한 사건이 존재한다. 이슬람권과의 교역을 통해 이따금 커피를 맛보던 유럽 사람들은 점차 그 치명적인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하지만, 아랍인들은 커피를 독점하기 위해 목욕이나 씨앗의 반출을 엄격히 금지했다. 모든 커피는 삶거나 볶아서 수출해야 했다. 그러나 1600년경 결국 인도 순례자가 몰래 빼낸 커피 씨앗 7개가 네덜란드 상인의 손에 넘어감으로써 커피는 마침내 아라비아 반도를 벗어나 세계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다. 문익점의 '목화씨 붓두껍 반입사건'이 약 200년 후에 유럽에서도 재현되었던 것이다.

유럽 중에서도 오스트리아에 커피가 들어간 사건은 더 드라마틱하다. 1683년 오스만 투르크의 대군이 신성 로마제국 수도인 빈을 포위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폴란드 출신으로 기독교 연합군의 연락병 역할을 하던 콜시츠키(Kolshitzky)의 활약에 힘입어 기독교 세력은 이슬람의 침공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 그 때 투르크군이 버리고 도망간 물품들 중에 커피 500포대가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검은 알갱이들을 버리려고 했지만, 일찍이 터키에서 통역사로 일했던 콜시츠키는 이것들을 자기한테 달라고 간청한다. 결국 그가 빈에 개업한 커피 하우스가 그 유명한 비엔나 커피의 원조가 된다. 너무 쓴 터키식 커피 대신 우유를 듬뿍 섞은 커피를 즐기던 빈 시민들은 이를 투르크 침공 당시 열정적인 연설로 연합군의 사기를 고무시켰던 카푸친(Capuchin) 수도회 소속의 수사 다비아노(d'Aaviano)를 기리는 의미에서 카푸치노(cappuccino)라 부르게 되었다. 커피에 우유를 탄 이 갈색 음료의 색깔이 카푸친 수도회 수사들의 옷 색깔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2003년, 로마 교황청은 다비아노 수사를 성인보다 한 단계 아래인 복자(福者)로 시복(諡福)했다.

여운규 (홍보팀 차장)

참고자료 : 살림 지식총서 89편 <커피 이야기>
(김성윤 저, 2004)

BOOK

이 달에 들어온 책

임미숙 (정책연구팀)

9시의 거짓말

최경영 엮음 | 참언론 시사인복

KBS 최경영 기자가 최근 펴낸 '9시의 거짓말'은 워런 버핏의 상식을 잣대로 한국 언론을 비판한 일종의 내부 고발서다. 이 책은 우선 '국익'이나 '중립' 또는 '객관'이라는 미명 아래 언론이 어떻게 사회경제적 강자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는지를 분석한다. 방송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저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언론의 현실을 꾸짖는다. 언론인들의 조직 내 순응주의, 언론과 광고의 문제,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 할량 미달의 기사 생산 방식, 뉴스와 주가 등 한국 언론의 한 자화상을 드러낸다. 나아가 중견 언론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잉 상업주의'로 인해 한국 언론의 뉴스가 점점 '좁고, 얇고, 짧고, 시끄럽고, 편파적'이라고 지적한다. 이 책은 한국 언론의 구조적 병폐와 문제점을 비교적 소상히 서술하고 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워렌버핏의 상식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한국 언론의 몰상식에 대한 효용을 비교한다. 언론과 대중, 그리고 주식시장 등에 대한 새롭고 낯선 관점을 심어주고 있다.

대통령을 감동시킨 어린이 기자

지난 10월 9일 한글날, 외국 귀빈들에게만 개방되는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이 파란 모자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청와대가 생긴 이래 최대 인원인 5,000여 명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곳을 가득 메운 파란 모자의 주인공들은 바로, 미래의 대한민국 언론인을 꿈꾸는 ‘푸른누리 어린이 기자’들이었습니다.

이날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모인 사람들 중에서 모두의 눈과 귀를 한 곳에 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푸른누리’ 1기 기자활동을 하고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류연웅 학생이었습니다. 1년 동안 ‘푸른누리’ 기자생활을 되돌아보며, 어린이 기자로서 그가 배운 것과 달라진 것을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 학생의 소감은 바로 진짜 어린이들의 꿈이 어떻게 자라는 지 들려주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법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푸른누리’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푸른누리 기자들처럼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고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켜서 원하는 꿈을 향해 각자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경쟁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푸른누리 1기 기자 류연웅(검암중) 기자활동 소감 중

청와대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1,073명(1기)에 불과했던 어린이 기자는 올해 4,054명(2기)으로 크게 확대되어 전국 방방곡곡과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카메룬 등 19개 나라에서 푸른 모자의 기자들이 뛰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만드는 인터넷 신문에 어린이들이 써보야 얼마나 글을 쓰겠냐며 별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기사는 첫째 한 호당 2~300여건에서 올해 1,000건에서 많게는 2,500여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사 건수만이 아닙니다. 때 묻지 않은 어린이들의 눈에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기사는 일반 언론의 특종보다 더 감동이 있었고 날카로운 논평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기자생활을 통해 사회를 배운 아이들은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사회봉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결성된 ‘푸른누리 오케스트라’가 12월 구세군 모금현장에서 봉사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양로원 등 사회복지단체를 찾아다니며 재능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자들이 만드는 것은 인터넷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긍정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꿈을 실천하며 사회를 배웠고, 우리 어른들은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서 우리의 미래를 배웠습니다.

‘푸른누리’는 오는 12월부터 3기 기사를 모집합니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와 재외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4학년에서 6학년(2011년도 기준)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소 호기심이 많고 글쓰기를 좋아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언론에 관심 있는 어린이라면 3기 기자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해주세요. 어린 시절 가장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파란 모자를 쓰고 취재수첩을 들고 열심히 뭔가를 취재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관심 있게 봐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함께 취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어린이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꿈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가 더 밝고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철균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 엠블렘 제작

내년 3월 31일 창립 30주년을 맞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기념 엠블렘을 제작했다.

지난 9일 제작이 완료된 기념 엠블렘은 중재위원회 기본 CI와 통일된 이미지로 따뜻한 색을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며, 국민과 언론의 따뜻한 교차점으로서 인간존중의 미래를 열기 위해 정진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30주년을 숫자로 표현했다. 또한 숫자 옆의

세 개의 날개 이미지는 창립 30주년을 넘어 더 큰 번영과 비전을 향한 역동성을 나타낸다.

창립 30주년 기념 엠블렘은 곧 디자인에 들어가는 창립기념 우편엽서에 적용되며, 내년에 발행되는 중재위원회 각종 간행물 및 기념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010년도 정책심포지엄 개최예정

중재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한국 사회의 자살과 언론보도'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정택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하규섭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이 제1주제('국내 자살 현황과 문제점') 발제를,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제2주제('자살보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발제를 각각 맡게 된다.

그룹웨어 시스템 운영개시

중재위원회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사무처 그룹웨어 시스템이 지난 1일자로 개통되어 운영에 들어갔다. 전자결재, 전자우편 및 게시판 기능 등이 통합 구축된 그룹웨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기존의 위원회 전자우편 및 인트라넷 게시판 등은 운영을 중단했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 대국민 서비스 페이지를 내년 1월 오픈할 예정이다.



신입직원 상담교육

법무상담팀은 지난 12일 효율적인 대국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사 1년차 이하의 신입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했다. 상담교육은 일반적 상담요령 및 상담서 작성방법 안내, 모의 상담 등으로 4시간동안 진행됐다.

'샘터마을'에서 봉사활동

중재위원회 사무처 봉사활동 동호회 '코이노니아'는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치매노인 요양시설인 '샘터마을'을 방문해 건물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제6차 운영위원회 개최 예정

중재위원회 관련 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제6차 운영위원회가 12월 7일 11시 심리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규칙 개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다.

10월말 현재 조정신청 1,907건

사건 처리현황

NOVEMBER. 2010 VOL. 125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10월까지 모두 1,907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545건, 조정에갈음하는결정 125건(동의 98건, 이의 26건, 계속 1건), 조정불성립결정 113건, 기각 115건, 각하 1건, 취하 1,006건(피해구제 794건), 계류 2건이며, 피해구제율은 80.7%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7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471건, 신문 449건, 방송 153건, 뉴스통신 38건, 잡지 19건, 기타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10월까지 75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여 74건의 중재결정과 1건의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34건, 반론청구 27건, 추후청구 12건, 손배청구 2건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0년 10월말까지 모두 9차례의 회의를 열어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226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자 신원공개 155건, 피의자 신원공개 38건, 사생활 침해 7건, 마약 용량·용법 공개 4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및 형사사건 피해자 신원공개 각 2건, 기타 법익침해가 18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25건, 일간지 71건, 뉴스통신 16건, 주간지 11건, 월간지 3건이다.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현황

지난 8월 28일 출범한 2010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3건의 지역일간지 기사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결정내용은 주의 1건, 권고 2건이다. 선심위는 6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하반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정기간행물 128개 매체를 자체 심의하였으며, 설치기간은 11월 26일까지이다.

상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10월까지 2,229건을 상담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13건, 타기관 안내가 204건, 재상담 예정 120건, 법적절차 안내 76건, 자체종결 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일간신문 783건, 인터넷신문 730건, 인터넷뉴스서비스 701건, 방송 436건, 주간신문 340건, 뉴스통신 8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10월까지 모두 111차례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교육연수기관 49건, 언론사 21건, 지자체 11건, 대학 11건, 인턴십프로그램 8건, 공사기업 3건, 기타 8건 등이다.

COMMITTEEMEN



신복남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등반대회’ 참가

권성 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은 지난 6일 한국 자원봉사협회가 주최한 ‘엄홍길 대장의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등반대회’에 참가했다. 이 날 등반대회에는 이 제훈 한국자원봉사협회 상임대표, 엄홍길 산악대장,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을 비롯하여 학생들과 봉사 단원 등 총 1,004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인하대 로스쿨 원장 퇴임

권성 위원장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2년 임기를 마치고 10월 29일부로 퇴임했다.



김혜영 SBS

KBS 미디어 비평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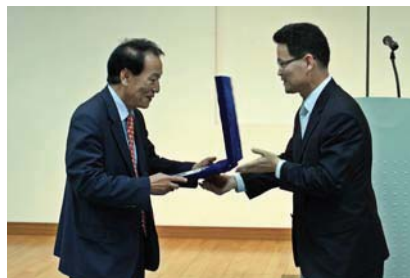
강미은 위원(서울제2중재부,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은 10월 29일 방영된 KBS 1TV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를 전하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강 위원은 언론사가 큰 그림을 보여주기 보다는 개별 사실들을 불균형하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대전지법

대전지역 독거노인, 조손가정 방문

이승훈 위원(대전중재부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 사진 맨 오른쪽)은 10월 25일 대전시 동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을 방문하여 난방유와 과일 등을 전달했다. 이 위원은 대전지법 직원 15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사랑나눔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영남 서울(가정법률)대

‘부마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 공로상 수상

남부희 위원(경남중재부, 창원대 사학과 겸임교수 / 사진 왼쪽)은 10월 18일 마산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에서 역사 규명에 도움을 준 공로로 10·18부마민주공로상을 수상했다.



「지역창생학」 출간

강형기 위원(충북중재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은 한국 향토와 풍토에 맞는 도시문화 창조를 위한 실천적 지침서 「지역창생학」을 출간했다. ‘지역창생’은 지역 재생과 창조 도시를 포괄하는 문화적 접근법을 의미하며,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소산 및 인재의 창조력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을 재생시키자는 것을 의미한다.



‘3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이성훈 위원(서울제4중재부, 변호사)은 지난 4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기 위원으로 임명됐다.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향후 2년간 기관 운영방식의 혁신, 전략사업 발굴 등을 통해 예술가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과 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02)397-3000, 3010, 3100

e-mail counsel@pac.or.kr

홈페이지 www.pa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00-750)



“잘못된 언론보도는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신문·방송은 물론, 이제는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정·중재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e-mail,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개정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www.pac.or.kr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